

광주 자치구 1호 결재 키워드는 ‘경제·안전’

2026 병오년 새해 업무 시작

동구·북구, 생명존중·재난 대응 체계 중점

서구·남구,페이백·가맹점 모집 활동 추진

광산구, 민원 접수 전 시민 불편 사항 해결

지난 2일 병오년 새해 업무가 시작된 가운데 광주 5개 자치구의 1호 결재 키워드는 ‘경제’와 ‘안전’이었다.

4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은 ‘서로의 안부 묻기 캠페인’으로 올해 첫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이는 주민 간 안부 묻기 활동 확산으로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생명 사랑에 대한 주민 관심을 유도한 것이 핵심

이다. 동구, 동구의회를 비롯해 경찰·소방, 조선간호대 등이 5·18민주광장에서 새해 행운을 담은 포춘쿠키(행운의 글)를 뽑고, 소원·다짐카드를 작성한 뒤 소원성취 북주머니를 나눠주며 일상 속 안부 확인의 중요성을 알렸다.

동구는 서로의 안부 묻기 캠페인을 자살 예방주간, 정신건강의 날 등과 연계해 운영한다.

서구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 골목페이 페이백 이벤트 추진계획’에 대해 서명했다.

서구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주민 생활비 절감을 위해 예산 14억원을 투입해 16일부터 4월23일까지 골목페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일주일 단위로 14회차 운영되며 주민의 주말 소비 수요에 맞춰 매주 금요일을 시작일로 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5%, 화차별로 최대 1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8일까지 ‘골목페이 이벤트’를 시행해 소비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남구 동행카드 가맹점 확대 모집 계획’을 1호 결재로 채택했다. 남구는 1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동행카드의 활발한 유통과 가맹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동네 지리에 익숙한 인력을 활용한 동별 가맹점 모집 홍보단을 운영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가맹 홍보·등록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북구는 새해 제1호 결재 안전으로 ‘통합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안전 분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기상이변, 대형사고 등 각종 재난이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북구는 지난해 4월부터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이 가능한 통합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에 착수했다.

통합 재난안전상황실은 북구청 신관 4층에 149.6㎡ 규모로 조성되며 전담 인력 확보 등의 준비를 마친 뒤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총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현장 상황 실시간 확인 영상 시스템 도입, 재난관리 기관 간 다자간 화상회의시스템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공간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올해 1호 결재로 ‘민원 전(前) 민원 해결 1004’ 추진계획에 서명했다.

‘민원 전 민원 해결 1004’는 민원 접수 후 대응하는 기존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민원 제기 전 시민 생활 불편, 지역의 위험 요소를 먼저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골자다.

광산구 21개동은 ‘1004 생활현장 책임단’을 구성해 골목길, 경로당, 공원 등을 중심으로 불편 사항을 살피고, 주민과 소통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7:41	달출	19:39
해돋이	17:34	달림	09:15



광주		1~6
목포		2~6
여수		2~7
순천		1~7
구례		-1~6
광주		1~7
임도		2~8
흑산도		5~7
고흥		0~8
진도		3~7

목포	미물(고)	03:01 / 15:56
	샘물(저)	08:24 / 21:08
여수	미물(고)	10:41 / 22:46
	샘물(저)	04:03 / 16:44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실현을”

5·18민주화운동 4단체, 병오년 신년 참배

5·18민주화운동 4단체는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신년 참배를 진행하고, 오월 영령들 앞에서 한 해의 공동 실천 과제를 다짐했다.

이번 참배는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이 참여했다.

4단체는 올해 ‘5·18 진실 수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살아있는 민주주의 계승’, ‘5·18 위상 확립’ 등을 추진한다. 또 공동 대응과 연대를 통해 5·18

정신의 계승과 제도적 완성,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오월은 과거에 멈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흐르는 진행형의 역사다”며 “분열이 아닌 연대, 침묵이 아닌 행동으로 오월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 5월, 이 땅의 민주주의는 오월 영령들의 피와 희생으로 지켜졌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 희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 직업계고, 공무원·군무원 70명 합격

공직박람회·면접 컨설팅 등 학교·교육청 협력 ‘결실’

전남 도내 직업계고 학생 총 70명이 2025년도 공무원 및 군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

4일 전남도교육청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직업계고 학생들은 올해 전국 지역인제 9급 국가직 수석 지원에 27명, 도청 및 시·군청 기술직(시설·공업·농업 등)에 32명, 도교육청 기술직(시설·조리)에 3명, 군무원에 5명, 해양경찰에 3명 등 총 70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54명 대비 공직 사회 진출 성과가 한층 확대된 결과다.

올해 공무원 및 군무원 시험에서는 목포공업고(공무원 9명·군무원 2명), 순천청안고(8명), 여수정보과학고(7명), 완도수산고(5명), 순천공업고(5명) 등 고르게 합격자를 배출해 전남 직업계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직업계고 학생들

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역량강화사업 △전공 심화 동아리 지원 △공직 박람회 운영 △맞춤형 면접 컨설팅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시험 안내 및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왔다. 또 합격자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수업과 전공 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 필기시험과 실무 능력을 고루 쌓아, 공무원 및 군무원 고졸 임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어려운 시험 과정을 이겨내고 당당히 합격한 학생들과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전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떡국 배식 봉사하는 김이강 서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이 최근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이후 청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떡국 등 점심식사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대·조선대 정시 경쟁률 전년보다 상승

전남대 4.33대 1·조선대 6.04대 1... 경영·경제 계열 강세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양 대학에 따르면 전남대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283명 모집에 555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33대 1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4.11대 1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2019학년도 4.11대 1 정시모집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전형별로는 수능(일반) 전형 문화관광경영학과가 23.00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능(지역인제) 전형으로 선발하는 주요 보건의료계열의 경우 △간호학과 2.47대 1(15명 모집·37명 지원) △의학과 3.94대 1(18명 모집·71명 지원) △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 4.50대 1(8명 모집·36명 지원) △약학부 7.00대 1(9명 모집·63명 지원)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선대는 총 293명 모집에 1770명이 지원해 6.04대 1(정원내 9.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5.83대 1보다 상승한 수치다. 모집군 및 전형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가군에서는 일반전형 11.10대 1, 지역인제전형 4.30대 1, 실기전형 4.31대 1로 집계됐다. △나군은 일반전형 14.63대 1, 특성화고졸입재직자전형(정원 외) 0.05대 1을 기록했다.

가군, 나군 통틀어 일반전형에서는 경제학과가 2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이어 경영학부 19대 1, 산업공학과 19대 1, 유럽언어문화학부 18.80대 1의 순이었다.

지역인제전형에서는 약학과가 6.11대 1로 가장 높았고, 치의예과 4.18대 1, 의예과 4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실기전형에서는 체육학과가 7.67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는 음악교육과가 4대 1을 보였다. 김인수 기자 joinus@

신안 흑산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최다 서식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내 100개 섬 생물다양성 조사

국내 100개 섬의 생물 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가장 많은 섬은 신안 흑산도, 생물 총 출현종이 많은 섬은 진도로 조사됐다.

4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발간한 최근 5년간(2021~2025년) 국내 100개 섬의 생물 다양성 자료집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많은 섬은 신안 흑산도(44종)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인천 소청도(37종), 인천 백령도(36종), 인천 대

청도(32종), 신안 가거도(25종) 순이었다.

흑산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이 공존하는 중요한 생태적 요충지로, I 급에는 저어새, 황새, 흰꼬리수리, II 급에는 매, 팔색조 등 다양한 희귀종이 서식한다. 자산어보의 탄생지로 알려진 흑산도에는 총 1551종(동물 716종, 식물 687종, 미생물 148종)의 생물이 서식한다.

신안 가거도는 I 급 풍란과 나도풍란을 비롯해 II급 콩짜개란, 석곡 등 희귀 난과 식물이 분포한다. 빠꾸기, 남방노랑나비 같은 남방계 동물과 송악, 후박나무 등 난대성 식물이 공존하는 등 총 1824종의 생물(동물 627종, 식물 998종, 미생물 199종)이 있다.

생물 총 출현종이 가장 많은 섬은 진도(3526종), 울릉도(2754종), 남해도(2480종), 백령도(2267종), 완도(2238종) 등의 순이었다.

민속의 보물섬이라 불리는 진도는 총 3526종(동물 1806종, 식물 1298종, 미생



저어새

물 422종)이 존재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2종이 서식하며, I 급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수달과 II 급 흑비둘기, 삿 등이 대표적이다.

진도열가시불은꼬리염색새, 다도해비비추 등 47종 고유종도 있다.

완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흑비둘기, 팔색조, 삿 등 16종이 확인됐



흰꼬리수리

다. 호랑가시나무, 다도해비비추, 제주도 룡봉 등 33종의 고유종이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 갯벌, 연안 생태계의 생물자원 조사를 통해 1만 4074종(동물 6724종, 식물 3142종, 미생물 4208종)의 자생생물을 확인했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6만1230종의 약 23%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섬 자생종목록 2

만2084종의 63%에 해당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섬은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이자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먼저 겪는 지역이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20개 유인도를 선정해 동물(곤충류, 척추동물류, 무척추동물류), 식물(산대식물류, 양치식물류, 나자식물류, 피자식물류), 미생물(균류, 원핵생물, 원생생물) 등의 분류군을 조사해 섬 지역 생물 다양성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